

작가의 시간 / 여러 개의 이름

August, 2016 | 현시원 독립 큐레이터

review > 01

작가의 시간/여러 개의 이름 《유명한 무명》전 국제갤러리 6.28-7.31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직 신성시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독재국가 아닐까.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는 얼굴이 복제된 이미지를 가깝게 여기면 안 되고 그 이미지의 후광을 규율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곳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땅에서도 흔치 않다. 하나의 얼굴이 가진 영험한 힘과 지도력을 물리적 실체와 더불어 믿어안단 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2016년의 여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포켓몬 고(Pokémon Go)의 광풍이 강원도 속초에 나타난 날들이다. 게임 아이콘이 실제 도시 하나를 배회하고 누군가는 실제 아닌 실체를 잡기 위해 어딘가 기어코 이동한다.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이 강력한 힘은 도대체 뭘까. 《유명한 무명》전을 보며 포켓몬 고를 떠올린 건 김희천의 4시간에 이르는 영상 작업 《Savior》(2016)의 화면에 노란 피카츄가 등장한 것이 하나의 이유다. 낮을 낮게 만들거나 정반대로 길고 긴 영상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 정신을 또렷하게 만드는 이 작업 앞에서 여러 개의 변조된 가법고 들른 목소리들을 들었다. 그러다 파편처럼 흩어지 아이콘들 속에서 화면에 가뿐하게 떠 있는 포켓몬을 보았다. 하지만 이보다는 도망가고 잡히고, 잡히려 들고 잡히지 않으려 드는 숨배 있는 선명한 게임의 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서, 전시에 나타난 유명과 무명이라는 선명한 대칭구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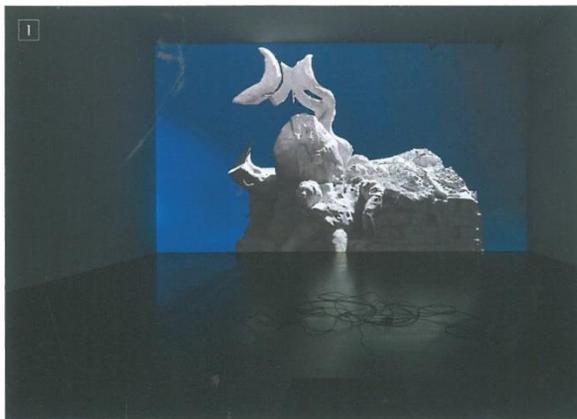
《유명한 무명》 전시장에서는 아직 무엇인가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일이 가능할까? 도망의 목적과 사냥의 동기화가 배터리가 부족해 사라져 버리는 일 없이 지속된 시점상에서 가능할까? 유명이 무명의 상태에서 서로 100% 대칭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변복과 갈등의 순간과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시 서문에 인용된 소설가 카프카(Franz Kafka)나 역사에 기록 및 누락된 얼굴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작가들이 주장할 것 같다. 그러나 여름밤에 뜨는 상현달과 하현달처럼, 무명과 유명은 서로 다른 반대편의 얼굴을 가리킨다. 무엇보다 전시가 올려놓은 유명과 무명의 상태는 아직은 서로의 이름과 얼굴, 정체성이라는 것이 식별 가능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가치 체계라는 전제에 기초한다. 물론 이 얼굴과 이름을 전시는 “작가적 삶의 태도, 작품의 운명에 관한”(김성원 큐레이터) 것으로 제시한다. 정체성을 가진 한 존재의 또 다른 상태를 빌려오거나, 벗어나 경신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를 이용한다.

전시된 작업들은 2011년부터 2016년에 제작된 시점을 통과한다. 《유명한 무명》전이 품고 있는 시간대는 참여 작가 E티(김경태), 오민, 김영나, 베리핑크, 김희천, 이윤이, 남화연의 각자 다른 행보와 작업 방식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전시의 시간은 바깥의 시간과 동일한 체계를 따를 수 없다. 전시를 계기로 이제 막 완성된 작업들이 2016년의 라벨을 달고 있다면, 2011년에서 2012년 또는 2013년, 2015년에 제작된 참여 작가 일곱 명의 또 다른 작업들이 전시장에 배치되어있다. 전시기획자가 내놓은 질문에 고해상도의 또 다른 질문을 내놓기도 하고(오민, 남화연, 김영나), 자신의 과거에 있을 법한 단서들을 데려오기도 하고(이윤이, E티)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질문-답의 형태(베리핑크)를 배치하기도 한다. 이 시간 속에서 참여한 일곱 명의 작가들은 주제나 개념이 등의 공통분모를 공유하지 않는다. 자신이 질문하는 가치나 상태에 놓인 변곡점들을 드러내거

나 숨긴다. 먼저 김희천의 《Savior》는 작가가 인스타그램(Instagram)에 1년의 지정된 시간 동안 업로드한 1,600여 개의 영상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외부로 내보낸다. 관람자는 다운로드할 수 없이 전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영상과 함께 시간을 떠다 보내게 된다. 진동과 전파와 더불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질문과 대답, 대화와 대화를 가장한 독백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 몸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니터 위에서 썩데기, 무너지고 부서지는 현세의 여러 뉴스화면과 조간난 서사들을 보게 되는 《Savior》는 제한된 시간대가 매우 명확한데 작가 김희천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문화예술 계열 기관에 취직한 자신과 미술 작가로서 보낸 두 시간 동안 “두 자아에 동시에 로그인”하였다고 한다.

김희천의 4시간 5분 52초까지 영상이 작가의 말과 같이 《(슬래시)》를 치고 들어왔다 슬쩍 빠져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이윤이의 《한편...자식!》은 버스터 키튼(Buster Keaton)의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한 사람을 비추는 4분짜리 영상으로 16mm 영상기를 통해 끊임 없이 루프 되는 지속의 시간을 보낸다.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되 얼굴은 사용하지 않는 키튼의 기예 코미디는 얇은 종이 가면 하나와 돌팽이를 파하는 반복된 행위로 오늘날 남아있다. 1층 전시장에 놓인 이윤이 작가의 또 다른 작업 《재생시간》은 작품 제작 연도가 2011-2016년이라고 적혀있다. 전시장 벽을 뚫고 나와 벽을 반반씩 사용하고 있는 약기 하모니움은 비디오 작업에서 볼 수 있듯 상황에 따라 여기저기 이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약기는 뉴욕 스튜디오, 여자 컨테이너 등을 거쳐 공연, 설치, 보관되었던 것이며 5년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미술/작업과 연관되어 살아오며 비류 달린 사물에 의존하여 활용되었다.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포나 근육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작업은 아마도 남화연의 조각 작업 《화이트 마르나》(2016), 《블랙 마르나》(2016)일 것이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발견된 기형의 태이지 사지에서 출발한 이 물리적 형상은 추후 작가 자신이 만든 ‘이상한 꽃들이 만개한 정원’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김영나의 《SET v.4》(2016)는 2015년 출간된 도록 『SET』(2015)를 국제갤러리 전시장에 변환한 작업으로,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두산갤러리 뉴욕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도



● 기획 · 진행 이효정 기자



1. 전시전경
2. 이효이 《Time to Play》 2011-2016 (단체설비(디오록백) 8분 9초(반복재생), 기법: 에 어브로나를 기반한 설치, 이종식 수레에 카펫, 디지털 프린트(3장, 495x350cm) 가변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3. 김영나 《SET v.2》 Cover, p. 12, p. 9, p. 46, p. 44 2016 복권에 메인팅 기법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록과 동일한 제목을 가진 김영나의 전시 《SET》에 이어 도록이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작업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도록 『SET』에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미술가인 김영나가 이제껏 제작했던 작업이 시각이미지로 변환되어 어떠한 부연 없이 제시되었는데, 이번 전시장에 불려온 흑백 칼라 이미지로 나뉜진 《SET v.4》의 버전은 또 다른 작업을 추동하는 동시에 김영나라는 작가의 '과거' 모든 작업을 불특정적이지 총체적으로 지시한다.

보리스 그로이스(Boris Groys)는 「말스 이후의 뒤상, 예술가의 두 신체」라는 글에서 2010년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MoMA)에서 열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의 개인전을 언급하며 작가의 존재에 관해 말한다. “에른스트 칸토로비치(Ernst Kantorowicz)는 그의 책 『왕의 두 신체(The

King's Two Bodies』(1957)에서 왕이 자연적이고 유한한 신체와 불멸의 공식적이고도 제도적인 육체를 지닌 역사를 조명한다. 작가가 자신의 신체를 드러낼 때, 그 신체는 예술제도 안에서 축적된 노동의 가치를 드러낸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조각이 미술관에 얼마 동안 걸려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작가(아브라모비치)의 신체와 마주할 때,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신체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관객들로 하여금 작가를 오랫동안 바라보게 만든다.” 《유명한 무명》전에 작가의 신체나 얼굴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작가가 걸어왔던 시간의 특이점, 변환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추적과 불연속을 거느리는 작가의 시간이었다. 또 다른 이름을 빌리거나(TH와 김경태) 한 가지 이름을 고집하며 다른 작업을 사용한 작업을 하며, 또는 세 명이 하나의 이름(베리명즈)을 리고 하는 이 모든 작업은 작가로서의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방식의 차이를 말한다.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단식하고, 온라인상으로 은둔되 끝없이 신체 단련 운동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존재론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방식들은 과연 누구나 ‘선택’ 할 수 있는 것일까, 선택 또 선택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데 선택은 정말 가능할까, 작가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은 시대마다 변화된 옷을 입는다. 웃인지 피부인지 여름이면 벗겨지는 세포들인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지금의 작가는 포켓몬 고와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방향표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길이 없는 시대가 끝없이 생산해내는 무의미 자체와 대결하고 있다.

한편 전시장을 몇 회 방문하며 매번 다른 전시 상태를 보았다. 평일 오후에도 관람객이 많은 이 전시장 안에서 한 명의 관람객은 노트에 전시장 도면을 직접 그려가며 모든 작업과 전시장의 벽면, 작품이 없는 복도 구석까지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가 궁금해했던 것은 뭐였을까? 연필을 들고 수직수평을 맞춰보기도 한 그를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은 아마도 영원히 생략될 것이다.

● 현시원 독립 큐레이터

